



뒷고기 드시옵서예

김성찬
기획팀



제주도는 3년 전에 처음 가봤다. 누구나 한번쯤 가봤을 법한 곳이지만 첫 방문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. 설레는 마음으로 나름의 계획을 세워봤다. 살펴보니 한두 번 방문한다고 제주도를 오롯이 다 즐길 수는 없겠다 싶었다. 허리도 좋지 않아 이리저리 발품을 팔 수도 없었다. 그래서 먹을거리에 집중했다. 제주도는 수려한 자연경관만큼이나 먹을거리가 풍부하다. 해산물, 흑돼지, 햄버거, 말고기 등 찾아갈 명승지가 많은 것처럼 먹을거리도 많아 첫 방문으로 모든 걸 맛볼 수는 없어 보였다. 제주도를 소개하는 여행 책자 몇 권을 뒤적이면서 취향에 맞춰 음식을 고르니 몇 가지로 추려졌다. 흑돼지 삼겹살, 고기국수, 돔베고기, 돼지두루치기가 그것이다.

첫날은 고기국수를 먹어보기로 했다. 여행 책자는 유명한 세 곳을 추천했다. 그 중 한 곳을 찾아갔다. 정말로 유명한지 가게 앞에는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. 평소엔 아무거나 먹자는 주의라서 그러지 않지만 제주도까지 여행 온 만큼 기다려보기로 했다. 30분쯤 기다렸을까 마침내 고기국수를 맛보게 됐다. 무엇보다 푸짐한 인심에 만족했다. 동행한 지인과 각자 한 그릇씩 주문했는데 하나로 나눠 먹어도 충분할 듯했다. 맛집으로 유명세를 치르는 것에 비해 정작 맛이 없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대만족이었다. 평소 면류를 즐기는데다가 고기까지 얹혀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순 없었다.

다음날엔 돔베고기를 찾아 떠났다. 숙소가 공항 근처에 있는 터라 제주시내에 있는 가게를 택했다.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 쉽게 찾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. 택시에서 내리고도 스마트폰 지도를 길잡이 삼아 한참을 들어갔다. '돔베'는 제주말로서 '도마'라는 뜻이다. 도마 위에 돼지고기 수육이 올라온다고 보면 된다. 수육이라고 하면 그리 희귀한 게 아니어서 새로울 것도 없지만 지역색 짙은 작명 탓인지 완전히 다른 음식 같았다. 맛도 좋았다는 건 두 말할 나위 없었다.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흥대 앞 막걸리 집에서 돔베고기를 발견했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.

눈치 챘겠지만 먹을거리로 고른 것들엔 모두 공통적으로 돼지고기가 포함돼 있다.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내 취향 탓이다. 그런 점에서 온전히 흑돼지 삼겹살만 먹는다는 건 순수함에 대한 열정과 같다. 영화로 치면 무성영화고 음악이면 클래식이다. 라면을 사랑한다는 어떤 사람은 라면에 김치나 계란 등 라면 봉지 안에 있는 것 이외의 것을 넣어 먹는 것은 라면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던데, 어쩌면 국수에 돼지고기가 빠져 있고 양념과 함께 수육을 먹는 것은 흑돼지 삼겹살에 대한 예의가 아닌지 모른다. 제주에 오면서 염두에 둔 음식도 얼마 안 되는 마당에 매끼마다 다른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 고기국수와 돔베고기, 돼지두루치기를 먹을 때 빼고는 모두 흑돼지 삼겹살을 먹었다. 맛이 어땠냐고 묻는 건 우문이지 않을까.

영화 '쿵푸팬더'에서 팬더는 아버지가 만드는 국수의 레시피를 알고 싶어 한다. 이렇게 맛있는 국수에는 분명히 특별한 레시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. 팬더의 아버지는 영화 말미에 그 비밀을 팬더에게 말해준다. 레시피 따위는 없으며 모든 것은 다 네 믿음 때문이라고. 네가 스스로를 드래곤 워리어라고 믿으면 바로 드래곤 워리어라는 해안이다. 알듯 말듯 한 말이지만 나의 제주도 돼지고기 순례도 비슷한 것 같다. 어쩌면 고기국수나 돔베고기, 흑돼지는 서울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다. 그래도 제주도라서 특별했다면 아름다운 제주도 풍경과 동행한 사람, 무엇보다 흑돼지 삼겹살에 대한 나의 절절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.

